





다가 꼬마 한번만 한다는 것이 유라나 빨래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화투에 열중해버리고 만 것이다.

옆집 꼬마가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와 불이 났다고 전하는 소릴 듣고 우루루 달려갔을 때 불길의 벌써 열 집으로 번지고 딸의 집 지붕스레이트에선 더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날씨는 건조하고 바람은 알맞게 불었다. 딸은 당황하여 갈팡질팡하다 유라를 찾았을 때 불행인지 다행인지 유라는 이웃집에 뉘어져 있었다.

그러나 유라는 실신상태였고, 발목 바로 위까지 입은 화상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상태였다.

유라를 부들켜 안고 병원에 다달았을 때 의사의 청천벽력같은 말은 화상이 너무 심해서 치료는 불가능하고 다리를 발목부분까지 절단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남자도 아닌 여자가 다리를 잘린 후 이 세상을 살겠냐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세살박이 유라를 싸안고 돌아온 모질고 모진 딸. 딸은 이웃집 아랫목에 세살난 유라를 이불을 꼭 씌워놓고 자신도 쥐약

을 먹어버렸다.

그러나 온갖 고되어 병원으로 가 목숨을 건졌으나 유라는 다리를 수술해야 하는 수술임에도 딸의 고집으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불은 집 세가구를 다 태우고서야 꺼졌으며 다행히 그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양산촌이라 물도 귀했지만 소방 시설도 미비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컸던 것이다.

불의 원인은 이러했다.

유라가 잠에서 깨어 문을 밀고는 부뚜막으로 내려서면서 부뚜막의 석유풍로를 건드리는 바람에 끓는 빨래가 그대로 유라의 다리위로 쏟아졌고, 석유가 쏟아지면서 목조에 엉성하게 지어진 집에 순식간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우물가에서 놀던 꼬마가 불을 발견하고 소리를 쳐서 이웃집 아낙이 달려왔을 때 불이 천정의 각목까지 올라가 있었다. 얼핏 유라생각이 난 아낙이 불길속을 더듬으니 한 칸에 쓰러져 있는 유라!

아픔을 참고 덩구느라 다리는 더 엉망이 되었고 그 어린 것이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다 쓰러져 손

톱끝이 모두 부러져 있더라는 얘기에, 나는 의식없이 누워있는 딸을 마구 때리며 통곡을 했다.

“네가 부모가슴에 못을 박더니 자식에게까지 상처를 주는구나! 이 몸 쓸 것이”

그래도 딸은 그저 누워서 반응이 없었다.

죽겠다고 굶고 누워있는 딸을 입원시키고 유라도 입원을 시켰다.

유라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불을 뒤집어 씌운 채, 고열과 살이 썩어가는 아픔에 시달리면서도 죽지 않았다. 참으로 어쩔수 없는, 살아야만 하는 운명인가 보았다.

결국 5일만에 수술에 들어간 유라의 다리는 발목부위만 절단하면 되었던 것을 5일간이나 뜨듯한 아랫목에서 살이 썩어 무릎말까지 절단해야 하는 불행을 초래했다.

내 딸은 무슨 말로도, 무슨 행동으로도 유라에게 지은 죄를 갚을 길이 없다. 그 아이가 자라서 좌절감에 부딪칠 때, 내 다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을 때 무어라고 답변을 할 것인가.

유라의 수술한 모습은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온통 붕대에 싸인 다리가 침대끝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를 마주치며 아득히 먼 곳으로 떠밀려가고 있었다.

유라의 수술경과가 좋다는 말을 전해들으며 붕대를 풀고 1주일이지나도록 간호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나는 가보지 않았다. 도저히 가볼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 다릴 본단 말인가?

그러나 어쩔수 없이 가슴을 떨며 가 보았을 때 유라는 처음 보는 할머니를 향해 조그맣고 하얀이를 드러내며 웃어 주었다.

품에 안고 토실한 궁둥이를 만져

보니 따뜻한 체온이 내 손으로 전해져와 다시 한번 숨죽여 흐느껴야만 했다.

유라는 퇴원할 때 까지 온 병원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간호원, 의사, 일하는 아줌마들 모두가 출근하면 반드시 유라에게 먼저 들러 뽀뽀를 해주기도 하고 안고가서 놀아주기도 했다.

유라는 명랑하고 예뻐다. 가끔씩 자신의 다리와 다른사람의 다리를 번갈아 보곤 했지만 자신의 불행에 대해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명랑

잃었다. 남은 것이라곤 쓰디쓴 후회와 유라에 대한 죄책감뿐이었다.

지금 딸은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그애의 목적은 화재보험에 가입시키는 것보다 불조심을 일깨워주고 미비한 시설이나,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된 것들을 주의시키는 데 있다.

딸은 욕도 많이 먹는다. 어떨때 싸움을 하고 들어올 때도 있다. 그러나 딸의 투지는 대담해서 어떠한 일에도 기가 죽거나 실망해 하는 일이 없다. 자신과 같은 불행이 다시



하고 예쁜 아이에 불과했다.

이런 모습이 된 손녀와 딸애기를 부끄럼없이 하는 나를 비웃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잠시의 부주의로 이보다 더 큰 화재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것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루에도 수없이 살펴보고 점검하고 안전을 기하는 정신과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용기를 내어 내 딸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다.

내 딸은 그 불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다. 남편과 이혼을 했고, 가정도

는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뚜렷한 자신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딸은 어딜가나 불조심을 입에 달고 다닌다. 처음엔 이런 딸을 미쳤나? 하는 눈으로 아래 위를 훑어보지만 시간이 흐르고 딸을 이해하게 되면 딸이 들었던 아파트 계단엔 소화기가 놓이기 마련이고 담배불도 꼭꼭 확인하는 꼬마들이 생긴다.

그러나 나는 안다. 딸의 가슴엔 그 누구도 치료해줄 수 없는 커다란 상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의 아픔을 잠시라도 잊고 싶어 그렇듯 자신의 몸을 혹사해가며 불

조심을 외치고 다닌다는 것을. 비록 유라를 그렇게 만들긴 했지만 자식 앞엔 모성 그 자체로 남고 싶다는 것을.

창밖 베란다너머로 아카시아 향기가 어지럽고, 놀이터에선 아이들의 즐겁게 뛰노는 함성이 가득하다.

유라는 베란다에 앉아 물끄러미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앉아있다. 파랗게 핏줄이 돌아나 보이는 유라의 이마엔 초여름 햇볕으로 송글송글 잘디잔 땀방울이 맺혀 있다.

유라의 눈은 부러움으로 가득차 있고 그러다 살짝 웃는다. 바라보니 한 아이가 넘어져 울고있는 것이 눈에 띈다. 유라의 꿈은 코피를 흘려도 좋으니 밖에서 저렇듯 신나게 뛰고 달리는 것이리라.

내 늙은 다리라도 네게 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만 아카시아 향기도, 뛰노는 아이들도 모두 못마땅해지며 베란다 문을 닫고 들어온다.

“유라야, 그림 그리자.”

“응, 할머니!”

“유란 이 다음에 뭐가 될래?”

“그림 그리는 사람. 그래서 저렇게 뛰어노는 걸 그리고 싶어.”

나는 할 말을 잊는다.

그래, 그러렴. 발로 못하는 것을 손으로라도 맘껏 화폭에 펼쳐 보아라. 하지만 육체가 건강하다고 정신마저 건강한 것은 아니란다. 그걸 알고 정신만은 건강하게 자라다오.

그림을 그리다 잠이 든 유라의 머릴 쓰다듬으며 얼굴을 들여다보니 살짝 웃는다. 꿈에선 즐겁게 뛰노는 꿈을 꾸나보다.

어느덧 여섯시.

계단에 귀를 모으고 유라를 데리러 오는 딸의 발소릴 가려내려 애쓰며 가만히 중얼거려 본다.

“불조심!”

